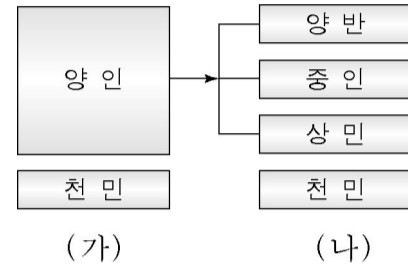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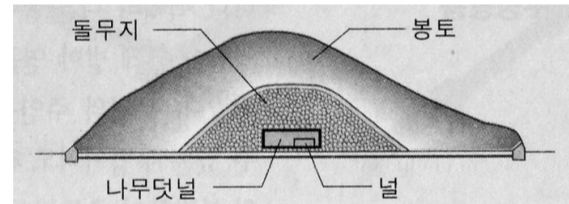
2005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국사)



[3 점]

- 법흥왕 15 년에 불법(??)을 처음으로 행하였다.
- 신문왕 2 년 6 월에 국학()을 세웠다.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를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 여 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러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국사) 사회탐구 영역



이제 살펴보면,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그 전정(?)이나 호구(?)가 현(?)에 미달하는 곳에는 향(?)을 두기도 하고, 부족(?)을 두기도 하여 소재 읍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때에는 또한 소(?)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소, 은소 ... 자기소, 어염소 등의 구별이 있어 각기 생산하는 물건을 바쳤다.

이 태자에게 군사를 주니, 곧장 치양으로 가서 고구려 군을 급히 깨뜨리고 5,000 명을 사로잡았다. 그 포로를 장수와 사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조선 시대에 다음과 같은 학문의 발달이 가져온 사회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농민 2 : 군포 때문에 ...

뭇으로 군포를 내라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사회탐구 영역 (국사)

농민 1 : 이런 죽일 놈들 ..., 그래 군포를 바칠 셈인가?

농민 2 : 그럼 어찌겠나?

신시(?)라 불렀다.

“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외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니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초기의 봉당 정치는 동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시작되었는데,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서인에 의해 북인 정권은 몰락하고 이후의 정국은 현종 때까지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가)



(나)